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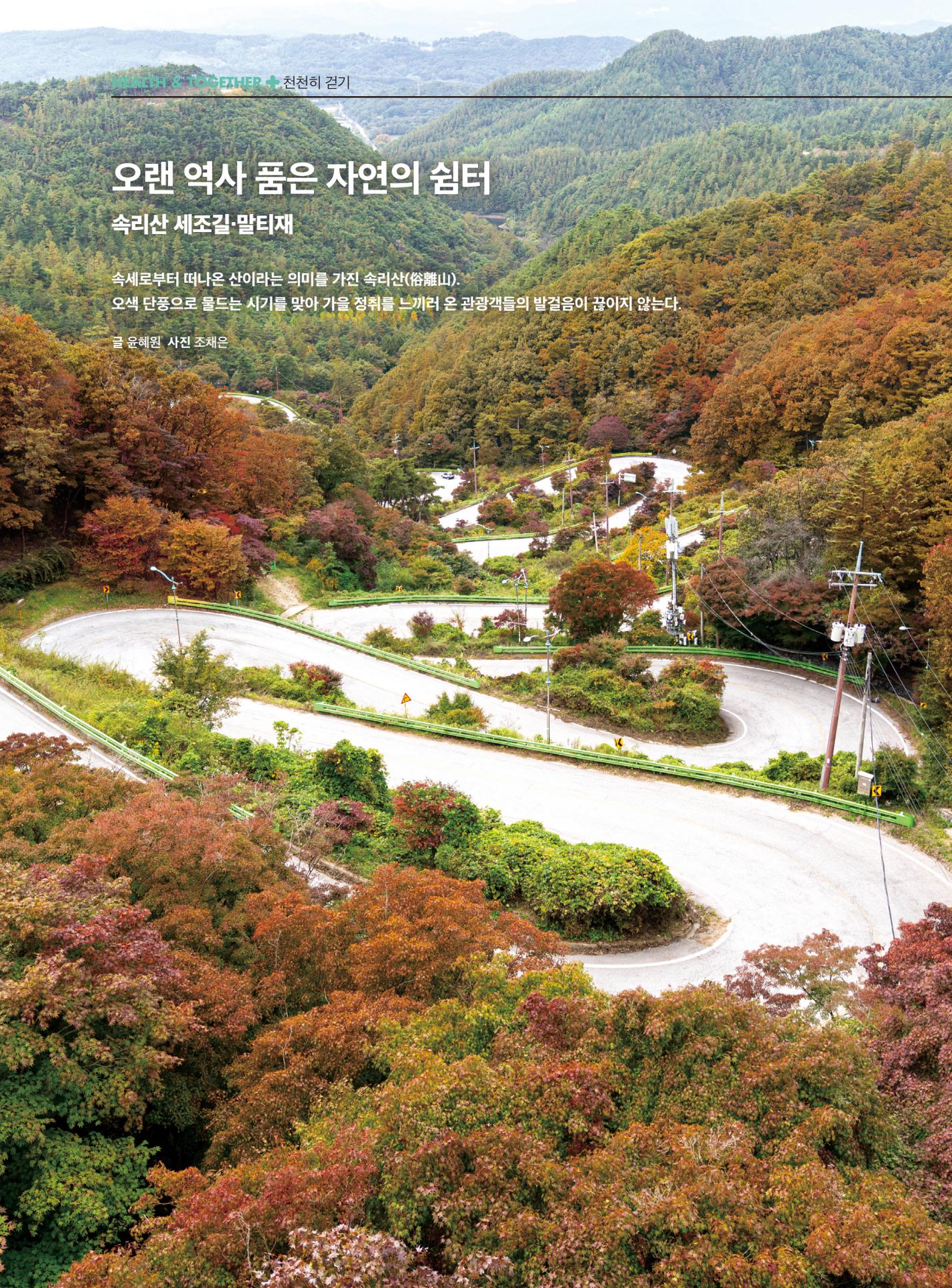
# 오랜 역사 품은 자연의 쉼터

## 속리산 세조길·말티재

속세로부터 떠나는 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속리산(俗離山).

오색 단풍으로 물드는 시기를 맞아 가을 정취를 느끼러 온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글 윤혜원 사진 조채은



## 세조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산책

법주사부터 세심정까지 약 2.4km를 잇는 속리산 세조길은 뒤늦게 가을을 맞이한 나무들이 알록달록하게 있을 물들이고 있다. 세조길은 수원지 옆을 걷는 수변 데크길부터 단풍계곡길, 목욕소까지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누구나 편하게 산책이 가능한 무장애 탐방로도 조성돼 있다.

세조길 초입에는 신라 시대부터 천오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법주사가 있다. 동양 최대 미륵불 입상인 금동미륵대불과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목조탑인 팔상전 등 여러 문화재가 존재한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법주사 곳곳에서 행복과 건강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법주사를 지나 도착한 상수도 수원지. 가슴이 뻥 뚫리는 풍경이 펼쳐진다. 구름 없이 맑은 날이면 수원지에 속리산이 거울처럼 반영되어 장관을 자랑한다. 1급수의 맑은 물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세조길은 풍성한 볼거리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숨겨져 있다. 조선 초기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피부병에 시달렸는데, 치료를 위해 법주사에

방문하면서 '세조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법주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정이품송'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도 있다. 세조가 법주사로 가기 위해 가마를 탄 채로 소나무 밑을 지나려 하자 나무가 나뭇가지를 높게 들어 올렸고, 이에 세조가 소나무에 정이품의 벼슬을 내리며 지금의 '정이품송'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지금까지 세조길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연의 쉼터로 자리 잡았다.

## 200% 만끽하는 속리산

세조길 한 바퀴를 도는 데에는 약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수원지 주변으로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 중간중간 주변을 감상하는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세조길의 끝이자 '산에서 마음을 씻는 터'인 세심정에 도착했다면 뿔어져 나오는 피톤치드 속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해 보자. 그간의 피로가 씻길 것이다.



속리산에 방문하는 대부분 관광객은 주로 법주사 코스를 이용하지만, 자신의 체력 수준과 산행 경험에 따라 다른 코스를 선택해도 된다. 평소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화북탐방지원센터에서 오송폭포, 문장대, 세심정을 지나 법주사로 내려오는 코스를 추천한다. 약 10km에 달하는 길이지만, 속리산의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는 코스다. 특히 문장대는 세 번 오르면 극락에 간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속리산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인기가 많다.

**TIP. 속리산 주변 즐길 거리**

**속리산테마파크 모노레일(솔향공원)**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로 600

🕒평일 10:00~17:00 | 주말 및 공휴일 9:00~17:00

**말티재 전망대**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산4-14

🕒9:00~17:30(기상 악화 시 전망대 출입 제한)



속리산의 즐길거리는 자연에서 끝나지 않는다. 법주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보은의 유명 특산물인 대추와 신선한 나물을 활용한 다양한 한식 먹거리가 준비해 있으니, 산책을 마친 뒤 기력을 충전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도 있다. 법주사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솔향공원은 모노레일과 집라인, 스카이바이크 등이 모여있다. 일명 '뷰 맛집'으로도 통하는 모노레일 종점, 목탁봉 카페에서는 100년 된 살구나무 목탁을 치며 소원을 비는 경험도 할 수 있다.

속리산 테마파크에서 조금 더 이동하면 '꼬부랑길'로 유명한 말티재 전망대가 있다. 높은 전망대에서 숲 사이로 이어진 도로의 풍경은 감탄을 자아낸다. 마지막까지 속리산을 즐기고 싶다면, 전망대 포토존에서 가을의 멋을 품은 속리산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 🍂

